

'영원한 1등'에게 라이벌은 없다



광주FC 공격수 펠리페가 지난 3월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산과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제치고 드리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선두 광주FC, 오는 17일 안방서 2위 부산과 일전

다이렉트 승격 '고비'...내친 김에 선두 굳힌다 '부산 킬러' 펠리페 공격 선봉, 공·수 총력 승부



GWANGJU FOOTBALL CLUB

프로축구 광주FC가 승격을 위한 총력전을 준비한다. 광주는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산과 하나원큐 K리그2 2019 2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와 부산은 리그 개막 후 5개월여 동안 K리그2 다이렉트 승격을 향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다. 광주는

19경기 무패행진과 함께 탄탄한 조직력을 선보이며 K리그2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아왔고, 부산은 끈질기게 추격해 왔다. 광주는 21라운드 기준 부산과 승점을 9점차까지 벌리는데 성공, 우승을 향해 한걸음 다가갔으나 최근 2무로 주춤한 사이 부산이 2연승을 거두며 격차가 좁혀졌다. (현재 승점 차 5점) 이제는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 승리로 이끌 해결사는 단연 펠리페다. 지난 라운드 전남전에서 환상적

인 헤더와 함께 시즌 16호골로 리그 득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으며 동료들과의 호흡 또한 훌륭하다. 특히 부산전 통산 3경기 4포인트(3골 1도움)를 기록, 부산 킬러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중원에는 징계와 부상으로 결장했던 박정수와 임민혁이 돌아와 안정감을 더하고, 이희균, 윌리안, 두현석 등 측면자원이 적극적인 수비가담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띤다. 여기에 아슬마토프와 이한도의 철용성 수비까지 부산의 추격지를 꺾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부산은 강하다. 선수단에 투입되는 예산, 개개인의 커리어 등 많은 부분이 광주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정협, 노보트니, 이동준 등의 공격진은 47득점으로 강력한

화력을 뽐내고 있으며, 호물로, 박종우, 김문환 등의 활약도 경계대상이다. 광주는 중원싸움을 통해 공격을 사전 차단하고, 발 빠른 측면 자원을 활용한 역습으로 상대 골문을 노려야 한다. 부산이 올 시즌 28실점을 하고 있는 만큼 허점을 철저히 분석해 공격기에 나서야 한다. 광주가 홈팬들 앞에서 부산을 잡고 K리그2 왕좌의 자리를 지켜낼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는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광주FC와 함께하는 축강스' 이벤트를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물놀이 워터파크와 물총 놀이, 키다리 배여로 등 무더위를 날릴 여름 테마 행사로 기획됐다. /박희중 기자



1954년 3월 7일 일본 메이지진구장에서 열린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 한일전. 한국이 골을 넣었고 있다. /한국축구 100년사 캡처

한국 축구 첫 일본 이긴 '도쿄 대첩' 영화로 만든다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일본전 치열한 승부 다툼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꺾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 한일전 스토리가 영화로 제작된다. 영화 제작자인 차승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14일 "광복 후 첫 한일전이 자 일본을 이긴 '도쿄 대첩'을 내년 연말 개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연 배우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일본과 첫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첫 극일(克日)이라는 소재가 극적이었다"면서 "내년 3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의 한 수'(2014년)와 '킵'(2011년) '복서'(2000년) 등을 연출한 조범규 감독이 메가폰 잡을 예정이다. 영화 '도쿄 대첩'(가제)은 광복 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치른 일본과의 1954년 스위스 아시아지역 예선 1, 2차전을 다뤘다. 당시 한국은 일본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맞붙게 돼 있었지만 '일본인 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두 경기 모두 일본 도쿄에서 치렀다. 대표팀 사령탑이었던 이유형 감독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 선수단 모두가 현해탄에 몸을 던지겠다"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한국은 결국 1차전 5대1 대승에 이어 2차전 2대2 무승부로 1승 1무를 기록해 스위스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1954년 3월 7일과 같은 달 14일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메이지진구장에서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원조 스트라이커인 최정민이 1차전 멀티골에 이어 2차전에서 득점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앞장섰다. 특히 1차전 5대1 승리는 역대 78차례의 한일전에서 최다골 승리이자 '원조 도쿄 대첩'으로 남아 있다. 한국 축구의 '전설'인 고(故) 최정민 선생의 딸인 최혜정씨는 "아버지가 스위스 월드컵 예선 한일전을 다른 영화가 만들어지는 걸 생전에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것 같다"면서 "어머니를 통해서도 아버지가 일본과 경기에서 멋진 활약을 했다는 걸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이 14일 열린 샌디에이고 원정경기에서 7회 역전 투런포를 터트린 후 제2루를 밟고 있다. /AP-연합뉴스

최지만 '역전 투런' 작렬 시즌 11호...팀 5연승 견인

최지만(28·탬파베이 레이스)이 역전 2점포를 작렬하며 팀의 5연승을 이끌었다. 최지만은 14일 열린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4대4로 맞선 7회 초 2사 1루에서 우중월 홈런을 터트렸다. 지난달 29일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상대로 2점포를 터트린 지 16일 만에 나온 시즌 11호 홈런이다. 1대4에서 4대4로 따라잡았던 탬파베이는 최지만의 홈런으로 6대4로 점수를 뒤집었다. 탬파베이는 7대5로 승리하며 샌디에이고 3연전을 싹쓸이하고 5연승을 질주했다. 최지만은 2회 초와 3회 초에는 시즌 13·14호 2루타를 터트리는 등 이날 5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최지만이 한 경기에서 장타로만 3안타를 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열린 2019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에서 여대부 정상상을 차지한 목포과학대 배구 선수단이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목포과학대 배구, 시즌 첫 2관왕

2019 현대캐피탈배 대학배구 우석대 꺾고 우승 정진 최우수지도자상·김나연 최우수선수 영예

목포과학대 배구부가 올 시즌 2관왕에 올랐다. 목포과학대는 지난 13일 해남 우석체육관에서 열린 2019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 결승전에서 지난 1차 인제대회 우승팀인 우석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25-16, 25-22, 23-25, 25-19)로 승리하며 여대부 여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준결승전에서 서울여대에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결승에 안착한 목포과학대는 우석대와의 결승전에서 MVP 김나연의 눈부신 활약으로 1, 2세트를 쉽게 승리한 뒤 3세트를 내줬으나, 4세트를 25대19로 매조지었다. 2005년 팀을 창단한 목포과학대는 2019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연맹전 1차 인제대회 3위의 아쉬움을 털어내며 지난 5월 제74회 전국남녀중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시즌 첫 2관왕에 올랐다. 목포과학대는 여대부에 참가하는 전국 5개팀 중 유일한 2년제 대학팀으로 매년 선수 수급이 어렵고 참가하는 대회의 횟수도 타 대학에 비해 적지만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선수들의 자신감

상승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진 목포과학대 배구부 감독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도철학을 묵묵히 따라준 선수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학교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한편, 목포과학대는 정진 감독의 최우수지도자상 수상을 비롯해 최우수선수상에 김나연(2년), 세터상 정다은(2년), 블로킹상 박보은(2년), 리베로상 모희지(2년), 신인상 김주은(1년) 등이 개인상을 휩쓸며 우승 잔치에 걸맞은 기쁨을 만끽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해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광주시협회장기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 여중부 영천중과 성덕중의 경기 모습. /광주시핸드볼협회 제공

빛고을 핸드볼 꿈나무 큰 잔치

광주시협회장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17-18일 예선리그

핸드볼 저변확대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위한 제3회 광주시협회장기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 대회가 17-18일 이틀간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핸드볼협회(회장 유석우)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핸드볼협회와 ㈜세화아이엠씨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부 8개 팀, 중등부 14개 팀 등 총 22개 팀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예선리그를 거친 뒤 다음달 21일 결선토너먼트를 치른다. 남녀 초·중등부 우승팀 4팀은 오는 11월 15일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지난해 광주대표로 제11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에 참가한 고실초(여초부)와 영천중(남여팀)은 3위에 입상, 우수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시핸드볼협회는 이번 대회 각 종별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지도자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 트로피와 장학금, 격려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또 행운권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도 푸짐한 경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성장과 핸드볼 꿈나무들이 '학업과 운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협회에서도 꿈나무 선수들이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협회장기 대회 개최와 광주도시공사핸드볼 선수단 재능기부 등 행정·재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